

장마 앞두고 배추·무 가격 올랐다

aT 광주전남본부, '얼마요' 발행
고구마·쌀 ↓ 오이·감자·깐마늘 ↑
수박·참외 등 당분간 내림세 전망

최근 기온상승과 무더위 영향으로 채소 생육이 부진해 반입량이 감소하며 배추와 상추 등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장마가 예보되고 있어 생육여건 악화와 출하작업 부진 등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채소류 가격은 향후 2주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최주환)는 지역 소비자들의 농산물 알뜰장바구니를 돕기 위해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2212호를 발행했다.

'얼마요'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년보다 가격이 크게 내린 품목은 고구마, 배, 쌀 등이며, 가격이 오른 품목은 오이, 감자, 깐마늘 등이다.

고구마는 1kg에 4,800원, 배 10개에 4만 1,7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2,200원), 21%(-11,300원) 하락했다. 이외에 쌀은 20kg에 5만1,600원으로 전년보다 11%(-6,700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오이(취정 10개)는 전년(7,000원)보다 32% 오른 9,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냉국이나 냉면 등 여름 음식 부재료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자(100g)와 깐마늘(1kg)도 전년보다 각각 26%, 25% 오른 360원, 1만1,300원으로 조사됐다.

붉은고추와 수박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지

만, 2주전 보다는 하락했다. 붉은고추 100g 가격은 1,020원으로 전년(1,000원) 보다 2% 상승했다. 6월 최대 성출하기를 맞은 수박 1개 가격은 2만4,500원으로 전년(2만원) 보다 22% 상승했지만, 2주전 보다는 각각 15%(180원), 2%(500원) 하락했다.

향후 2주간 전망에 대해서 aT 관계자는 "금주부터 장마가 예보되고 있어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배추, 무를 비롯해 과채류, 쌈채류 등 채소류 대부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참외는 성출하기가 지나 공급물량이 감소하겠으나, 제철과일류 반입에 따른 소비 선호도 저하 등 수요감소로, 수박은 우천으로 인한 소비둔화가 예상되어 내림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KAM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aT는 '2022 뉴푸드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다. /aT 제공

미·중 국제박람회 뜨겁게 달군 'K-Food'

aT, 3천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김한성 셰프 초청 현지음식 구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개최된 국제박람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참가해 K-Food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22일 밝혔다.

aT는 지난 12일부터 14일 개최된 '2022 뉴푸드박람회(2022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해 3,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와 aT는 건강과 기능성식품을 선호하는 미국의 최신 식품 트렌드에 따라 46개 한국 식품기업으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인삼, 홍삼 등 다양한 건강식품류와 유기농 감로차 등 차류를 비롯해 불고기, 된장 등 한국적인 맛의 소스류와 인기 스낵류 등을 선보였다.

또한 뉴욕 유명 레스토랑의 김한성 오너셰프를 초청해 참가기업 제품을 사용한 김치 두부

파스타, 토마토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맥앤치즈 등 현지 음식을 구연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aT는 참가기업에 미국 수입통관제도 FSMA 규정과 식품안전성, 비유전자조작식재료(Non-GMO) 등 미국 식품시장 교육과 전문 관세사의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사면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2022 사면 전자상거래 및 왕홍 박람회'에서는 홍삼음료, 유제품, 유자차, 감귤칩 등 한류 인기식품 50여 종을 선보였다.

'사면 전자상거래 및 왕홍 박람회'는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현장에서 선정한 제품으로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국관은 왕홍, 대리 판매상 등 SNS 벤더 80여개사와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현지 플랫폼 티몰, 도우인 한국식품과 연계해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6회 진행한 결과, 박람회 기간 중 약 8,200만원 매출을 달성했다. /김혜린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국민과 소통·공감의 활동을 이어가고자 모집한 국민참여홍보단 발대식을 열었다. /사학연금 제공

사학연금, 국민참여홍보단 발대식

주요소식·활동 SNS에 공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국민과 소통·공감의 활동을 이어가고자 모집한 국민참여홍보단 발대식을 열었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SNS 3부문 채널 운영이 활발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각 채널별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20명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생을 단원으로 모집해 사학연금 본사와 인접해 있는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공적연금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사회활동 참여기회와 진로 탐색의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발대식은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앞서 사학연금 이동환 경영관리본부장 환영사와 위촉장 전달에 이어 주요사업 안내와 홍보단의 역할·활동을 공유했다.

국민참여홍보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1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사학연금 제도와 주요소식, 지역사회 활동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함과 동시에 홍보 관련 제언과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주명현 이사장은 "사학연금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소통을 통해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선발된 광주·전남 고등학생 홍보단원은 미래의 사학연금 고객으로서 공적연금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와 진로 탐색에도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한전KPS, 경영진 성과급 반납 동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2021년도 경영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

22일 한전KPS는 전력그룹사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부응하고자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전KPS는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매출수익증대 노력을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전력그룹사에 불어 닥친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력그룹사의 성과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전력그룹사 간 소통과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강도 자구 노력과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무적 위기 극복 및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